



김정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치주과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박사
- 미국 펜실바니아대학 치주과 수료
- 삼성서울병원 치주과 과장 역임
- 현)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임상부교수

심미적인 보철물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가하는 요즘 보철물 자체의 완성도가 더욱 빛이 나기 위해서는 주변 잇몸과 그 주위조직이 건강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치주, 보철, 보존, 교정 등의 각 치료와 조화를 이루어 완성될 때 가장 심미적인 보철물이 완성될 수 있다. 이에 보철과 연관된 종합치료에서의 치주치료의 역할을 알아보고, 그 방법들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보철치료와 관련되어 만나게 되는 문제점들은 peg-shaped maxillary lateral incisors, diastema, short clinical crowns, excessive gingival display, orthodontic malocclusion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incisal edge position, clinical crown dimension, gingival architecture, smile line, tooth harmony, facial harmony 등을 평가하여 치료의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즉 tissue type의 종류, papilla의 존재 유무, flat gingival profile 또는 scalloped gingival profile 여부, 치조제의 흡수정도(Seibert Classification), 치아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각 치료계획에 따라 치주치료의 방법으로는 clinical crown lengthening, ridge augmentation, mucogingival surgery, minor orthodontic treatment 등이 있다.

보철치료, 치주치료, 교정치료가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phased treatment를 통해서 환자의 심미적 욕구를 최대한 만족시켜줄 수 있다. 이러한 조화로운 치료를 위해서는 보철과의사, 치주과의사, 교정과과의사 등이 환자의 요구와 기대를 신중히 고려하여 치료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할 때, 성공적인 치료 결과와 환자의 만족을 모두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